

대한제국 법어학교에 관한 연구

이 광 숙
(서울대학교)

Lee, Kwang-Sook. (2012). A study on the French Language School of the Korean Empire. *Language Research* 48.1, 177-195

The French Language School of the Korean Empire was established in 1895 and lasted until 1911. The development of the French School occurred in three stages, like the development of five other foreign language schools (English, Japanese, Chinese, German and Russian language schools) in the Empire. During the first stage (1895-1906), the French School was the third most prosperous school, after the English and Japanese schools. A large number of students entered the School, and the employment rates of its students were high. This is because the strong diplomatic power of France during this period leads to the introduction of the French system in areas such as the government's postal services and construction and the hiring of professionals who can speak French. The classes were held at the house of Emile Martel, a teacher at the French School, before the School found a site. Lee Nung-Hwa was a talented Korean instructor at the School, who also served as the principal.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was divided into two: the language acquisition classes, which accounted for more than 60 percent, and the other subjects (history, geography, science and mathematics). The second stage of the development (1906-1908) saw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third stage (1908-1911), all the foreign language schools were merged to form one school, where the French School became the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Japanese language is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each department as an elective course during this period.

Keywords: the French Language School, Korean Empire, curriculum, employment, diplomatic power

0. 논문의 목적

한국의 외국어교육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중국 고전을 배우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등 중국어 교육이 활발하였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몽고, 거란, 여진 등과의 관계로 역관이 필요하였으며 이 역관 교육을 위해 사역원이라는 국가 기구에서 외국어교육을 관장하였다. 사역원은

19세기 말 대한제국이 설립(1897년)되기 전까지 존재하였으며 그때까지의 외국어 교육은 동양어에 한정되었다.

조선이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1882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도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된다. 이로써 조선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게 되고 서양과의 교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통역관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학교 설립이 시급하였다. 그리하여 여섯 종류의 외국어학교가 세워졌으니 일어학교(1891년), 영어학교(1894년), 법어(프랑스어)학교(1895년), 아어(러시아어)학교(1896년), 한어(중국어)학교(1897년), 덕어(독일어)학교(1898년)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법어학교를 중심으로 프랑스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 연구가 현존 프랑스어 교육의 근원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어학교 설립의 시대적 배경, 설립 과정, 교육 내용(교육목표, 입학 조건, 학과과정, 교사와 학생, 교재) 등을 조사하여 현재의 외국어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한다.

국내에서 법어학교(1895~1911)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당대 외국어학교 관계 법령인 칙령, 학부령, 학부고시와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 관련 문건인 법어교사합동, 법어교사속합동 등 일차 문헌과 이차 문헌을 참고하였다.

1. 시대적 배경

폐쇄정책을 고수하던 조선 정부는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의해 일본과 개항을 하게 되었다. 서구에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어 미국(1882년), 영국(1884년), 독일(1884년), 이탈리아(1884년), 러시아(1884년), 프랑스(1886년), 오스트리아(1892년), 벨기에(1901년), 덴마크(1902년)와 차례로 외교통상조약을 맺게 된다(이기백 1997: 359). 다른 나라에 비해 프랑스와의 외교통상조약은 늦은 편인데 프랑스 국내의 사정과 조선에서의 포교 사업과 연관이 있다. 프랑스는 프러시아와의 전쟁(1871년)에서 패하여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조선의 천주교는 1784년 창설 당시부터 북경의 프랑스 선교사와 인연이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주교에 입교한 이승훈이 종교와 수학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간 곳이 북경의 천주교회 북성당이었다(최석우 1986a: 7). 1703년에 세워진 이 북성당에서 프랑스 예수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승훈은 이곳에서 1784년 그라몽De Grammont 프랑스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았다.

1787년 프랑스 라페루즈LaPerouse 함대는 동해를 탐사하였으며 제주도 남쪽 해안선을 측정하고 울릉도를 발견하여 다즐레섬ile de dazelet이라 명명하였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¹⁾는 1831년 조선교구를 설정하여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1836년에 모방Maubant 신부, 1837년에 샤스탕Chastan 신부, 앙베르Imbert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고 이들이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사제로 길러내었다(최석우 1986a: 9). 이들 한국 사제들은 라틴어, 프랑스어와 서양의 학문을 배웠다. 1856년 충청도 배론에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여기에서 그들은 라틴어와 한문을 가르쳤다(정기수 1987: 25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국인들이 서구어 중에서 처음으로 배운 언어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라고 생각한다.

로제티(서울학연구소(역) 1996: 312)²⁾에 의하면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속된 파리 선교단이 관리하는 학교가 탁월하였고 또한 두 고아원에 소속된 300명 이상의 소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선교단은 용산 근처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라틴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천주교는 수용되는 초기부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져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신해박해(1791년), 을묘박해(1795), 신유박해(1801), 을해박해(1815), 정해박해(1827). 1839년에도 커다란 박해 사건(기해박해)이 있었으며 이때에 위의 프랑스 세 신부도 새남터에서 처형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1846년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군함을 파견하여 선교인 처형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과의 교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최석우 1986a: 17).

1866년 프랑스의 로즈Roze 극동함대 사령관이 광성진, 정족산성 등 강화도를 침공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병인양요). 이 강화도 침략 시 아시아 지도, 서적(의궤포함), 기타 물품을 프랑스로 반입하였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1876년에는 다섯 명의 선교사가 조선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들 중에 리델Ridel 주교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조선 정부는 이번에는 그를 처형하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하였다(최석우 1986a: 26). 조선과 프랑스 간의 긴장 상태가 이전보다 누그러진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선과 프랑스는 1886년 6월에 1개월 동안 회담한 결과 조불수호통상조규에 조인하게 되었다. 회담 결과 프랑스는 한국의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

1) 이 전교회는 1658년 파리에 창설되었고 교황청의 포교정책에 따라 포교지에 신부들을 선교사로 파견하였다.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이미 1664년에 이 외방전교회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최석우 1986a: 7).

2) C. Rossetti가 1904년도에 쓴 *Corea e Coreani*가 원저서이나 이 저서를 구하지 못하여 이 논문에서 서울학연구소가 1996년 번역 출간한 책 ‘꼬레아 꼬레아니’를 인용한다.

여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896년 4월 서울과 의주 간의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1888년 콜랭 드 플랑시 Collin de Plancy가 프랑스 초대 대표로 서울에 오게 되었다. 1895년 10월 법어학교가 설립되고 법어교사 에밀 마르텔 Emile Martel이 초빙되었다. 1901년 4월에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우체조약이 조인되었다. 1903년 1월 한국 정부는 평양 탄광의 채굴권을 프랑스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 기사들이 내한하였다. 1900년에서 1904년까지 철도와 광산기술자를 포함한 14명이 한국 정부의 중요직에 고용되었다: 클레망세 E. Clémencet (농상공부), 드 라페리에르 De Lapeyrière, 부르다레 E. Bourdaret, 르페브르 G. Lefèvre, 퀴빌리에 L. Cuvillier, 레미옹 L. Rémon (이상 궁내부), 크레마지 L. Crémazy (법부), 페이의 G. Payeur, 루이 L. Louis (이상 군부) 등.

플랑시 총영사는 1899년 살르벨르 Salebelle를 한국 정부에 추천하여 조선왕국 건축기사로 고용케 하였으며 살르벨르는 궁전 내부 양식 시설, 개축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홍순호 1986: 101). 라포르트 Laporte는 1883년 제물포, 부산에서 세관리로 근무하였으며 1901년에는 인천세관으로 옮겨 1905년까지 한국 정부에서 일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 정부의 우체, 철도, 세관, 건축, 법률 등 분야에 프랑스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법어학교의 학생 모집, 취업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어의 언어, 역사, 문화, 법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한 1850년경 이후로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최석우 1986a: 27).

다블류 Daveluy 신부는 中韓佛사전을, 푸르티에 Pourthié 신부는 韓中羅사전을, 프티니콜라 Petinicolos 신부는 3만 이상의 라틴어와 10만에 가까운 한글 어휘를 실은 羅韓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1866년 병인박해로 유실되고 말았다.

다블류 신부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조선사 비망기’와 ‘조선 순교자 비망기’(1862)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냈다. 다블류 신부는 20여 년을 한국에 체류하여 한국어를 잘하였고 우리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알고 있었다.

달레 Ch. Dallet는 이 두 비망기를 1874년에 ‘조선천주교회사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로 간행하였다(최석우 1986a: 28). 이 비망기는 현재 ‘교회와 역사’라는 천주교 회지에 ‘조선순교자 역사 비망기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라 하여 2012년 현재까지도 번역, 발간되는 중이다.

선교사들은 1880년에는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1881년에는 ‘韓語文典 Grammaire Coréenne’을 편찬하여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출판하였다. 한불사전은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이며 한어문전은 한국어 문법에 해당한다.

쿠랑 M. Courant은 1890년 서울의 프랑스 공관의 통역관으로 부임하였으며 당

대 한국의 문헌을 정리하여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1894년에서 1896년까지 3년에 걸쳐 3권을 편찬하였다. 주지할 만한 사실은 이 ‘조선서지’에서 한자 발음을 중국식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한불자전’, ‘한어문전’의 표기법에 따라 한국 발음으로 표기하였다(최석우 1986b: 90).

법관양성소는 1895년 설립되었고 크레마지는 1900년 대한제국의 법률 고문으로 한국 관리들에게 국제법을 가르쳤다. 그는 한국 법령을 정리하였으며 1904년 ‘대한형법’을 프랑스어로(‘Le Code Pénal de la Corée’) 번역, 간행하였다(최석우 1986b: 91).

프랑스의 인류학자 샤를르 바라Charles Varat 탐사단은 1888년 한국에 와서 유물을 입수하였다. 1892년 이 수집품이 기메박물관Guimet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으로 이관되었으며 기메박물관은 1893년부터 한국실을 개관하였다. 바라는 1893년 ‘조선여행기Voyage en Corée’를 ‘세계일주Le Tour du Monde’에 발표하였다.

1900년 4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식품, 의류, 지물, 동기, 악기 등을 출품하였다. 쉬프렌가 Avenue de Suffren에 한국관이 있었으며 ‘서울의 추억Souvenir de Séoul’이라는 팜플렛에 대한제국관을 소개하였다. 이때 세계 최고 인쇄 금속활자본 ‘직지’(1377년)가 전시되었다.

2. 법어학교의 설립 과정

1895년 5월 10일 공포된 칙령 제 88조, 전문 11조로 된 외국어학교 관제에 의해 1895년 10월 5일 서울에 관립법어학교(이하 법어학교)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정동 프랑스 공관 앞 외국인 교관 마르텔의 집에서 수업하였다(일람,³⁾ 4쪽). 이후 법어학교는 아어학교와 같이 수하동 도화사로 옮겼다가 1896년 5월 북부 박동, 전 육영공원이 있던 자리(현 중등고등학교)로 다시 이전하였다(독립신문 1896.5.12). 다른 외국어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어학교도 이전을 많이 하였고 이전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다.

1902년 당시 법어학교는 교육체계가 대단히 실용적이고 엄격하였으며 당시 우체국 직원이었던 클레망제는 한국에 프랑스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전한다(서울학연구소(역) 1996: 310-311). 실제로 법어학교는 일어학교, 영어학교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다.

3) 1909년 총독부에서 발간한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을 말하며 이 논문에서 일람으로 인용된다.

범어학교는 1906년 9월 칙령 제40호(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계)에 의하여 관립한성범어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즉 학교의 소재지 한성이 추가되었다. 범어학교는 1907년 6월 중부 교동 전 사범학교로 이전하였다.

1908년 1월 1일 학부직할학교 및 공립학교관계(1908년 1.1. 시행칙령 제55호)에 의거하여 5개 외국어학교⁴⁾를 합병하여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개편되었고 범어부를 두게 되었다. 1908년 4월 전 사범학교 자리에서 교동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내로 이전하였다(일람, 4쪽).

한일합방 후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으나 여기에 외국어학교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영어와 일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는 교육이 불가능하였다. 일본 칙령 제257조에 따라 1911년 11월 1일 법학교, 성균관, 관립한성사범학교 등과 함께 관립한성외국어학교가 폐지되었다.

폐지 시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3학년 학생은 계속 교육을 받아 졸업하고 1, 2학년 학생은 경성고등보통학교에 편입되었다.

1909년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전체 학생수는 443명, 1910년에는 472명, 1911년에는 295명이었다(김영우 1983: 15).

외국어학교 폐교 직전인 1911년 4월 범어학교 학생수는 2학급에 5명이었고 9월에는 2학급에 4명이었다(조문제 1979: 38). 이 학생들 중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 1911년 12월 21일 마지막 날까지 학교를 다닌 것으로 추정된다(김영우 1983: 16).

이 시기에 외국어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일어, 영어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는 많았으나 그 외의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드물었다. 충북 제천군 유지들이 1906년 3월에 설립한 보흥학교에서 일어, 영어, 한어와 함께 프랑스어를 가르쳤다(김영우 1983: 21).

3. 범어학교의 교육 내용

3.1. 교육목표

범어학교의 교육목표는 프랑스어를 교수하는 데 있었는데 1906년에 범어를 숙련케 하여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수학 연한은 초기에 5년이던 것이 1906년 이후 3년으로 되었다. 1906년 이후 한 학급의 학생수는 50명 이하이었다. 1908년 외국어학교가 통합된 후에 범어부의

4) 아어학교는 러일전쟁으로 1904년 폐교되어 외국어학교가 다섯으로 되었다.

교육목표는 법어에 숙달하여 실무에 적합한 자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

학기는 봄 학기와 가을 학기로 된 2학기제이던 것이 1906년 이후 3학기제로 되었다. 1학기는 4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학기는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이었다. 교수일수는 매 학년 200일 이상이었으며 수업은 매일 5시간씩 이루어졌다. 이 3학기제와 200일의 수업일수는 이후 변동이 없었다.

3.2. 입학 조건

학생의 연령에 관한 입학 조건은 처음에는 15세 이상 25세 이하이었다. 1906년 이후에는 외국어학교 입학 조건이 12세 이상의 남자이면서 상당히 학력이 있는 자로 제한되었다. 입학 연령이 12세로 낮아진 것은 6~7년제 소학교가 1906년도에 4년제 보통학교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연계를 고려한 것이다. 외국어학교는 중등교육에 속하였다. 1909년 이후 입학 조건에서는 연령(12세 이상)과 성별(남자)에는 변함이 없지만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입학시험 과목은 1900년도 이전에는 국문과 한문으로 독서와 작문이었다. 1906년도 1학년 입학시험과목에는 국문, 한문 이외에 산술이 추가되었다.

1909년도 입학시험과목은 국어와 한문, 일어, 산술, 역사, 지리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입학 연령과 입학시험에 관한 규정은 각 신문에 게재된 외국어학교 학생 모집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고관의 추천에 의해서 외국어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평가에는 도강과 시험이 있었다. 도강은 일종의 학기말 시험으로 하기와 동기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이 외에 월말시험과 졸업시험이 있었다. 도강은 매년 2월경과 6월경에 치러진 것으로 되어 있다(서울학연구소(역) 1996: 340). 교사와 교관, 부교관이 상의하여 평점을 정했다. 평점은 10점 만점에서 1906년도 이후 100점 만점으로 바뀌었다. 시험과 도강 시에는 학부에서 감독관이 배석하였고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이 있었다.

3.3. 교과과정⁵⁾

다른 외국어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법어학교 학과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 일람에 1908년 외국어학교 각 학과과정표가 제시되기 전에는 외국어학교 규정에 따라 수업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1902년도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학연구소(역) 1996: 308-309). 1902년과 1903년에 서울에 체류한 로제티가 외국어학교를 방문하고 난 후 법어학교 수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프랑스어 쓰기와 말하기 수업(독서, 필기, 받아쓰기, 문법 분석, 작문, 프랑스어, 문장론, 회화,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
- 2) 산수(사칙연산, 비례산, **메트로법, 평면기하학과 입체기하학, 부기**). 주의: 고덕체로 쓴 것은 마지막 학년에서 배우는 것이다.
- 3) 지리학(마지막 학년에서).

모든 교과목이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수업은 매일 아침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이었다. 오후에는 한국어 교관이 매일 2시간씩 한문을 가르치고 수비대의 장교와 함께 한 시간씩 체육수업이 있었다.

그는 이 과정이 여섯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이 과정을 제대로 다 마치려면 3~4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여섯 과정을 다 마친 학생들은 대개 공직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당시 우체국 직원인 클레망세는 법어학교 졸업생 40여 명이 중요한 공직에서 일한다고 하였다(황국의 통역관, 외부 통역관, 광산, 철도위원회 직원, 페테르부르크, 파리, 베를린 공사의 비서 등).

또한 법어학교에서는 마지막 학년에 있는 몇몇 학생들에게 법률학교와 우편학교에서 특별 과정을 제공하여 법부와 우편관리를 위한 관료도 양성하였다(서울학연구소(역) 1996: 340).

1906년 법어학교의 교과목은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학부령 22호에 따라 법어

-
- 5) 전문용어 사용에서 당대의 문서에는 학과과정으로 되어있어 학과과정으로 하였고 그 이외의 경우 본 논문에서는 교과목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에는 교과과정이라 하였고 목표, 연한등 교과목이외의 내용도 함께 다루는 경우에는 교육내용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 6) 로제티는 1902년 7월 한 달간 친구이며 주한 이태리 공사인 프란체세티Francesetti를 방문하였다. 이 공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장티푸스로 인한)으로 1902년 12월에서 1903년 5월까지 공사대행을 맡았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여러 학교를 방문했으며 이 중에 법어학교도 방문하여 이 학교의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가 법어학교를 방문한 시기는 1902년인 것 같다. 법어학교 학생이 처음에는 14명이었던 것이 100여 명으로 늘어나 6학급으로 나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서울학연구소(역) 1996: 308). 입학생이 100여 명으로 된 것은 1902년도인 것을 이하 학생부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화, 습자, 번역, 받아쓰기, 작문 이외에 수신, 국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법제경제, 부기, 체조 등이 있었다.

1908년도에 와서야 실제로 구체적인 학과과정 내용을 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람(29~31쪽)에 제시된 1908년도 법어부 학과과정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내용만 설명한다.

1908년도 수업시간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매주 28시간이다.

독방과 역해가 2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과목들은 독해를 의미하며 1학년에서는 4시간씩, 2, 3학년에서 3시간씩 다루었다. 1학년에서는 일상생활의 문장을 다루고 2, 3학년에서는 역사, 지리에 나오는 훌륭한 언행이나 업적을 다루었다.

받아쓰기(서취), 회화, 번역에서 일상문을 다루었으며 각 과목을 매 학년에서 2시간씩 다루었다(단 회화는 1학년에서 1시간만 다루었다).

작문은 두 과목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작문 과목에서는 매 학년 1주일에 2시간씩 일상문과 기사문을, 다른 작문 과목에서는 한문으로 된 일상문과 기사문을 1시간씩 다루었다.

문법에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 학년 1주일에 1시간씩 다루어졌다. 불어선문은 2학년에서는 초급을, 3학년에서 중급을 1시간씩 다루었다. 이 학과 명칭은 불어선문이라 하여 (법어 대신) 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산술에서는 사칙연산을 1, 2학년에서 4시간씩 다루었고, 3학년에서는 기하가 추가되어 3시간씩 배웠다. 역사에서는 한국(본국)의 역사가 매 학년 2시간씩, 지리(지지)에서는 세계(만국)지리가 매 학년 1시간씩 다루어졌다. 한문에서는 경전, 즉 맹자를 매 학년 2시간씩 다루었다. 체조에서는 보통체조와 군대식 체조를 매 학년 5시간씩 하였다.

다른 어학부의 학과과정과 비교하면 법어부의 주당 수업시간(28시간)이 영어부, 덕어부(29시간)보다 1시간 적다. 법어부에는 다른 언어부에서는 없는 역사나 지리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물의 언행이나 업적에 관한 과목이 있다.

체조시간(3년간 15시간)이 다른 언어부(영어부, 덕어부 3년간 9시간)보다 많이 배당되었다. 산술(3년간 11시간) 역시 영어부(3년간 8시간)보다 많이 배당되었다.

학부고시 14호에 1909년도 외국어학교 각 언어부 학과과정 표가 제시되어 있다. 1909년도 법어부 학과과정표도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내용만을 설명한다.

1909년도 교과과정은 1908년도와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1909년도에는 수신, 습자(쓰기), 이과, 일어 학과목이 늘어났고 매주 수업시간이 1학년에서는 30시간이고 2, 3학년에서는 수의과 일어(2시간)를 포함해서 34시간으로 늘어났다.

학과목 명칭이 바뀌어 문법은 문전으로, 산술이 수학으로, 지지는 지리로 되었다. 수신 과목에서는 도덕을 주제로 매주 1시간씩 3년 동안 다루었다.

독방과 역해가 한 과목(독해)으로 합해졌으며 1, 3학년에서 5시간씩, 2학년에서 7시간씩 다루었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문장을 다루었으며 많은 시간이 배당되었다. 1908년도에 다루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언행과 업적에 관한불어선문이 1909년도에는 없다.

받아쓰기와 회화에서 일상문을 다루었으며 받아쓰기는 매 학년 3시간씩, 회화는 1학년에서는 1시간씩, 2, 3학년에서는 2시간씩 다루었다. 회화 배당 시간이 영어부, 한어부에서처럼 적었다.

번역(반역)과목은 보다 자세하게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또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명시되고 매 학년 2시간씩 행해졌다. 번역에서는 프랑스어에 범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를 번역의 대상으로 한 점이다.

작문과 문법(문법)을 한 과목으로 제시하였다. 1학년에서는 보통문과 초급 문법을 3시간 다루고, 2학년에서는 보통문과 초급 문법을 4시간, 3학년에서는 보통문과 고급문법을 4시간 다루었다. 습자는 초서를 1학년에서 2시간씩 다루었다. 한문 과목이 국어 및 한문 과목으로 변경되고 강독과 작문으로 1, 3학년에서 3시간씩, 2학년에서 2시간씩 다루었다. 한글이 국어라는 이름으로 공식 학과목 명칭이 되었다. 산술에서는 사칙연산을 1학년에서 5시간씩, 2학년에서는 소수가 추가되어 5시간씩, 3학년에서는 분수가 3시간씩 다루어졌다. 역사와 지리 과목이 합쳐져서 본국 역사와 본국 지리가 1, 2학년에서 2시간씩, 3학년에서는 본국 역사와 외국 지리가 5시간씩 다루어졌다.

이과에서는 2학년에서 박물(동물, 식물, 광물), 생리학이, 3학년에서는 물리, 화학이 1시간씩 다루어졌다. 체조 과목에서는 학교 체조를 매 학년 3시간씩 하였다. 일어가 수의과로 되어 2, 3학년에서 가타가나와 간단한 구어체를 2시간씩 배웠다.

두 학년도의 교과목을 언어 습득 과목과 언어의 습득 과목으로 분류하여⁷⁾ 도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7) 언어습득을 광범위하게 생각하여 언어과목과 그 이외의 과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문, 국어, 습자는 언어습득 과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어습득에만 국한된 구분도 가능성을 밝혀 둔다.

법어부 교과과정(1908년과 1909년)

1) 언어 습득 과목

1908년				1909년			
과 목	시 수			과 목	시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독 해	4	3	3	독 해	5	7	5
회 화	1	2	2	회 화	1	2	2
받아쓰기	2	2	2	받아쓰기	3	3	3
번 역	3	2	2	번 역	2	2	2
작 문	2	2	2	작문/문법	3	4	4
문 법	1	1	1				
불어선문		1	1				
작 문	1	1	1	국어/작문	3	2	3
한 문	2	2	2	쓰기(습자)	2		
				일어(수의과)		(2)	(2)
계 비율(%)	16 67.5	16 67.5	16 67.5	계	19 63.3	20(2) 64.7	19(2) 61.8

2) 언어 외 습득 과목

1908년				1909년			
과목	시수			과목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1	1	1
수학	4	4	3	수학	5	5	3
역사	2	2	2	역사/지리	2	2	5
지리	1	1	2				
				이과		1	1
체조	5	5	5	체조	3	3	3
계 비율(%)	12 32.5	12 32.5	12 32.5	계	11 36.7	12 35.3	13 38.2

법어부 언어 습득 과목이 두 학년도에서 전체 교과목의 대략 67.5%(1908년) 내지 62% 이상(1909년)을 차지한다. 언어외 습득 과목은 대략 32.5%에서 38%를 차지한다. 다른 언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어부 학과과정이 언어 습득 과목에 중

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도 교과과정은 언어 습득 과목에서 보다 일상이 위주로 되었다.

1909년도에 독해, 받아쓰기, 작문 시간이 늘어났으며 문법시간이 작문에 포함되었다. 작문에서 1908년도에 다루었던 기사문이 없어지고 쉬운 보통문으로 바뀌었다. 두 학년도에서 회화 배당 시간은 변함이 없다.

언어 외 과목에서는 1908년도에는 역사에서 한국 역사만, 지리에서는 세계 지리를 배우던 것이 1909년도에는 한국 역사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배우고 외국 지리는 3학년에서만 배운다.

수학에서는 1909년도에 소수, 분수가 추가되었고 다른 언어의 과목에 비해 시간 배당이 많은 편이다.

1909년도에 이과 과목이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식물, 동물, 생리, 물리, 화학이 다루어졌다.

다른 언어부와 비교해 보면 법어부에는 1908년도에 불어선문이라는 과목이 있었던 점과 한문에서 맹자를 다룬 점이 특징적이며 체육에 많은 시간(3년에 15시간, 영어부에서는 9시간)이 배당되었다.

1909년도에는 한글이 순차번역과 역행번역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국어라는 단어가 정식 학과목 명칭으로 사용되어 한글의 위상이 높아졌다.

3.4. 교사와 학생

3.4.1. 한국인 교관

1895년부터 1906년까지 법어학교 부교관으로 10명이 임명되었다(노인화 1989: 160: 김용덕, 안우상, 김한기, 진학선, 한길수, 유명우, 박용선, 홍순택, 최상목, 이경석). 이들 외에도 김조현, 김면수가 부교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들 부교관의 재임 기간은 법어학교의 경우 2명은 5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다른 부교관들은 1년 미만이었다. 이종화, 이기철, 이능화, 나현구, 김상천, 이법주는 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이능화는 1897년 11월 법어학교와 영어학교의 교관으로, 1906년도 이후에는 법어학교 학교장으로, 1908년 통합 이후에는 학감으로 1911년 폐교 시까지 근무하였다.

법어학교에서 특출한 사람은 한국인 교관 이능화이다. 그는 일찍이 한문을 사숙하고 영어학교, 한어학교, 법어학교와 일어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어학뿐 아니라 교육학과 심리학 강의도 들었으며 외국어학교 교관, 법어학교 교관을 지냈으며 1906년부터는 법어학교 학교장도 겸임하였다. 그는 번역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였고 1907년에는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03년 승정원일기(1월 28일자)에 의하면 의정부 외무대신이 번역위원에 법어

학교 교관 이능화를 치하할 것을 청하는 기사가 있다. 1903년 통첩 관서문안(2월 26일자)에 의하면 프랑스공사의 전보에 따라 이능화에게 통역을 맡기는 사실이 있다. 1906년 고종시대사 6집(6월 1일자)을 보면 이능화가 국문일정법의견서를 학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능화는 국학에도 조예가 깊어 ‘조선불교통사’, ‘조선도교사’, ‘조선기독교및외교사’ 등의 저술을 남겼다.

1898년 협성회회보(1월 22일자)를 보면 법어학교 교사 마르텔 씨와 교관 이능화와 부교관 이종엽과 김면수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도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는 보도가 있다.

3.4.2. 외국인 교관 에밀 마르텔

마르텔은 1874년 12월 4일 일본에서 태어났으며⁸⁾ 천진에서 프랑스 중학교를 다녔다(홍순호 1986: 105). 광산기사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4년제 대학인 광산학교를 졸업하였다. 동양에서 외국인 광산기사 대우가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광산기사가 되려고 하였다. 정부에서 1895년 법어학교를 설립하자 플랑시 공사의 추천으로 외국인 교관이 되었다. 그는 사진 기술이 뛰어나 현존하는 구한말시대 사진은 대부분 그가 촬영한 것이라 한다(홍순호 1986: 106). 그는 광산에 관한 지식을 인정받아 건설, 토목 및 광산 분야에서 검직을 맡게 되었다. 마르텔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하였고 영어, 독어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1905년 대한제국 국가를 작곡한 독일인 군악대장 프란츠 에커르트(Franz Eckert)의 장녀와 결혼하였다. 그는 어학실력을 인정받아 정부의 중요한 외교교섭 때 통역, 번역을 도왔고 외교사절과 함께 일본, 중국으로 파견된 일이 많았다.

마르텔은 1901년 무관학교가 개설되자 덕어학교 볼얀(Bolljahn)과 마찬가지로 무관학교에서도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는 1911년 법어학교가 폐지될 때까지 16년간 교사로 근무하였다. 그는 한국 주재 시 공로가 많아 1906년 조선 정부로부터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받았다.

서울대 규장각 서류를 보면 그는 계약서를 정기적으로(1895년, 1897년, 1900년, 1903년, 1906년, 1910년) 갱신하였다. 1897년의 계약서 내용에는 매월 월급이 225원, 주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임대비용 제공, 교과과정, 시간 엄수, 해고 시 사항, 병가 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⁹⁾

8) 마르텔의 아버지는 프랑스 세관리 알폰소 마르텔(Alphonse Martel)이었고 어머니는 일본인 루이 제(近藤 부인)이었다.

9) 이들 외국인 교사 계약서에는 각 언어마다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국 공관들이 형평성 문제로 조선 정부에 자주 항의하였다.

3.4.3. 학생

범어학교의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 수는 다음과 같다.¹⁰⁾

관립 범어학교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

년도	입학생	재학생	졸업생
1895	18	-	-
1896	34	17	-
1897	42	35	-
1898	62	100	-
1899	73	-	-
1900	81	-	-
1901	98	37	-
1902	100	-	-
1903	90	-	-
1904	52	-	-
1905	45	-	-
1906	30	44	9
1907	25	-	3
1908	3	-	8
1909	9	13	4
1910	21	-	2
1911	-	5	-

범어학교의 입학생 수가 특히 1898년부터 1903년도까지 영어학교보다 많다.¹¹⁾ 시대적인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우편, 통신, 공업 계통에 프랑스인이 관리를 하여 이 영역에 취업하려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로제티(서울학연구소(역) 1996: 311)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급배정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에 따르면 외국어학교를 졸업하려면 5년이 필요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로 4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고 학생들은 직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저 없이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범어학교는 6회에 걸쳐 26명이 졸업생으로 배출되었다(이성각(역) 2006: 271-

10) 이 통계는 노인화(1989), 김영우(1983), 조문제(1979), 이광린(1999), 홍준기(2006), 일람(1909), 이나바 쓰기오(1997) 그리고 필자의 작업을 종합한 것이다.

11) 영어학교 입학생 수는 1898년 30명, 1899년 20명, 1900년 47명, 1901년 58명, 1902년 53명, 1903년 62명이었다. 1904년도 이후에는 영어학교 입학생수가 범어학교보다 많다.

272). 1906년도에는 1월에 1회 졸업식이 있고 7월에 2회 졸업식이 있었다. 1회에는 한길수, 2회에는 박용선, 최상목, 홍순택, 진학선, 박용구, 유명우, 이경석, 김용덕, 3회에는 오경환, 정연교, 김홍렬이 졸업하였다. 1908년도 불어부 1회 졸업생으로 이윤재, 민완식, 백찬기, 최봉교, 박태신, 임응철, 전재풍, 주재풍이 있고, 1909년도에는 강한중, 김영권, 이용환, 김석배, 1910년도에는 박성원, 이택영이 졸업하였다.

위의 명단에는 없지만 김한수도 법어학교를 졸업하였고(1906년?) 졸업 후에 천주교에 입교하여 뫼텔Mutel 주교의 비서로 활약하였으며 살아 있는 교회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였다.¹²⁾

방승헌은 1898년 주영, 주독, 주벨기에 공사관¹³⁾의 서기겸 번역관으로 임명되었고 김우식, 정기학, 이신우, 최병옥 등은 법관양성소의 교관으로 임명되었다(홍순호 1986: 107).

3.5. 교재

로제티(서울학연구소(역) 1996: 340)는 1902년도 법어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과서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 선교사들과 마르텔이 사비로 교재를 구입하고 벽에 거는 지도도 부족하고 학부에서 제공하는 지필묵도 제한되어 있고 최근에는 식비도 폐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각 반마다 한불중 사전도 겨우 한 권씩이었다고 알려준다.

1909년 4월 칙령 53호로 외국어학교령개정(관보 4355호, 1909.4.20.)이 정해져서 입학 자격을 변경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외국어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나 학부대신이 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람(39~41쪽)에 제시된 법어부 교과서 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내용만을 설명한다.

독해 과목에서는 1학년에서는 ‘불어독본 초급’, 2학년에서는 ‘불어선문 초급’, 3학년에서는 ‘불어선문 중급’이 교과서로 배정되었다. 교과서 명칭에서 법어 대신 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불어선문 과목에서는 2, 3학년에서 독해에서 다루는 같은 교과서 ‘불어선문 초급’과 ‘불어선문 중급’이 사용되었다. 작문 과목에서는 ‘한문’이라는 교재가 있었다. 한문 과목에서는 중국 고전 ‘맹자’가 다루어졌다. 문법 과목은 2, 3학년에서 구두로

12)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 2011년 10월 2일자 서울주보에 연재되는 서울대교구 근·현대 신앙의 증인(4)에 김한수(1886~1950?)(라우렌시오)에 관한 글이 있다.

13) 당시 공사관이 유럽에서 한 곳에만 있어 여러 나라 업무를 겸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산술에서는 1, 2, 3학년에서 ‘보통산술’ 교재가 각 학년마다 지정되었다. 지리에서는 ‘중등민국지리’ 1권이 다루어졌다. 역사는 구두로 이루어졌다.

4. 맺는 말

대한제국의 법어학교는 1900년도를 전후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호황을 누렸다. 프랑스는 일찍이 18세기 후반부터 포교 사업을 통해 여러 차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지속하였다. 파리의방전교회 선교단들은 어느 서양인보다 한국의 사회와 문화 또 한국인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보다 수월하였다. 또한 당시 프랑스 신부들은 종교를 넘어서서 언어적인 면에도 관심이 많아 한국어 사전, 문법 교재 편찬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겨 현재 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학교 등에서 라틴어와 한문 교육이 한국 최초로 시행되어 프랑스는 한국의 외국어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능력 있는 플랑시 공사의 외교 수완으로 조선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프랑스 제도와 인맥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르텔 프랑스 교사의 적극성과 이능화라는 유능한 한국 교관이 법어학교를 이끌어가면서 재학생, 졸업생들의 취업이 초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06년도 이후 입학생, 졸업생이 현저히 줄게 되는데 이 또한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영향이 교육계에도 점점 커져서 외국어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외국어교육도 일본어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법어학교는 다른 언어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존 외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실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라는 뚜렷한 교육목표가 있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어교육에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육 내용이 언어 습득 과목과 언어의 습득 과목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법어학교의 경우 언어 습득 과목의 비율이 두 학년도에 걸쳐 전체 교과목의 62% 이상을 차지하며 이 비율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속되었다. 언어의 습득 과목은 당시에 절실히 필요했던 보통 지식(일반 상식)을 위한 과목(산술, 역사, 지리, 체육 등)이었다.

교수방법 면에서 원어민이 언어 습득 과목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과목도 각 언어를 직접 사용하여 가르쳤다. 2000년도에 와서야 원어민 수업을 강조하는 한국의 외국어교육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평가 방법은 이미 그 당시에 월말, 기말, 졸업 시험 제도가 정립되어 있었고 100점 만점을 단위로 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외국어학교 입학시험에 국어로 된 작문과 독서가 있었고 1909년도 학과목에 국어 과목이 공식적으로 생기게 되어 한글이 문어로서 교육의 대상과 매개체가 된 점이다. 19세기 전에는 교육의 내용이 고전 한문을 중심으로 사대부에 국한된 것을 감안하면 법어를 위시한 외국어교육을 매개로 한글의 위상과 보급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어교육의 교과과정, 학기제, 시험제도, 평점 체계 등이 오늘날 외국어교육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개화기에 서양과의 정치, 외교 관계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듯이 (외국어)교육 면에서도 당대의 교육제도가 현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이다.

애석한 점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교육이 정치 상황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외국어교육 규정과 제도가 수시로 개편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원어민이 외국어를 직접 가르치는 소통 위주의 교수방법이 1911년 외국어학교 폐지 이후 중단된 점이다. 이 직접적인 교수방법이 계속 이어졌다면 오늘날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도 듣기, 말하기에 취약한 현실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프랑스어를 위시한 제2외국어교육이 위기를 맞은 이 시기에 외국어교육은 제도적으로 보완과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전문인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가 계속 좁아져가는 이 시기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각 언어의 전문인 양성이 시급하다. 21세기 한 국민의 외국어 능력은 국가의 지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다언어교육과 정책이 과급되고 발전되어가는 이 시기에 한국에서도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진지하게 인지되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확고한 외국어정책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일차 문헌

[외국어학교 관계법령]

- 칙령 88호 1895년 5월 10일 외국어학교관계
- 칙령 40호 1897년 11월 13일 개정
- 학부령 19호 1906년 6월 14일 개정
- 학부령 11호 1900년 6월 27일 외국어학교규칙(학부령 14호 1902년 3월 6일 개정)
- 학부령 14호 1902년 3월 4일 외국어학교규칙개정
- 칙령 40호 1900년 10월 25일 외국어학교와 의학교와 중학교졸업인을 해학교에 수용하는 관제

- 칙령 43호 1906년 8월 27일 외국어학교령
- 칙령 28호 1908년 5월 7일 외국어학교령중 개정건
- 학부령 22호 1906년 8월 27일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 학부령 12호 1908년 5월 11일 관립한성의국어학교속성과규칙
- 칙령 53호 1909년 4월 19일 외국어학교령(개정)
- 학부령 5호 1909년 7월 5일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 학부고시 14호 1909년 10월 20일 관립한성의국어학교학칙

[참고자료]

- 法語教習合同, 1895
- 法語教師續合同, 1897
- 統監府 1909, [官立漢成外國語學校一覽].

구한국관보(<http://www.dlibrary.go.kr>)

국가지식포털사이트(<http://www.knowledge.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history.or.kr>)

2. 이차 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6). 『역사의 창』 2, 특집기획: 한불수교 120주년.
- 김영우. (1978). “舊韓末 外國語教育에 관한 研究(I)”, 『공주사대논문집』 16.
- 김영우. (1983). “舊韓末 外國語教育에 관한 研究(II)”, 『공주사대논문집』 21.
- 노인화. (1989). 『大韓帝國 時期 官立學校 教育의 性格研究』, 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 서울학연구소(역). (1996). 『꼬레아 꼬레아니』(카를로 로제티 Carlo Rossetti 1904년 著).
- 이광린. (1999). 『한국개회사연구』.
- 이기백. (1997). 『한국사신론 신수판』.
- 이나바 쓰기오 稻葉繼雄. (1997). 『旧韓末日語學校の 研究』.
- 이나바 쓰기오 稻葉繼雄. (2006). 『旧韓末教育と 日本人』.
- 이성각(역). (2006).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후루가와 아키라 古川 昭 2002(?)著 원저의 제목 확인할 수 없음).
- 이원순. (1986). “병인양요 일고”, 『한불수교100년사』 31~64.
- 우철구. (1986). “청일전쟁을 전후한 프랑스와 한국”, 『한불수교100년사』, 133~163.
- 전정환. (1986). “노일전쟁과 프랑스의 대한정책”, 『한불수교100년사』, 165~205.
- 정기수. (1987). “한국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의 변천”, 『교회사 연구』 5호, 253~175.
- 조문제. (1979). “韓末의 法, 漢, 德, 俄語學校 教育의 研究 I”, 『논문집』 12, 서울교육대학.
- 조문제. (1980). “韓末의 法, 漢, 德, 俄語學校 教育의 研究 II”, 『논문집』 12, 서울교육대학.

-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1). 『서울 주보』(2011년 10월 2일자).
- 최석우. (1986a). “한불조약 체결 이전의 양국 관계”, 『한불수교100년사』, 1~30.
- 최석우. (1986b). “한불조약 체결 과 그 후의 양국 관계”, 『한불수교100년사』, 65~93.
- 한국 교회사 연구소. (2012). 『교회와 역사』, 440.
- 한국사연구협의회. (1986). 『한불수교100년사』.
- 홍순호. (1983). “Emile Martel의 생애와 활동”, 『교회와 역사』 93호, 4.
- 홍순호. (1986). 『한불인사교류와 프랑스 고문관의 내한』, 95~132.
- 홍준기(역). (2006).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이나바 쓰기오 稻葉繼雄 1997 著).
- Rossetti, Carlo. (1904). *Corea e Coreani*.

이광숙

151-74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전자우편: prlks@snu.ac.kr

접수일자 : 2012. 3. 28

수정본 접수 : 2012. 4. 16

게재결정 : 2012. 4. 20

